



즉시 배포용: 2022년 12월 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광고 전화 단속을 위한 입법안 패키지에 서명

법안(S.8450-B/A.8319-C)에 따라 전화로 홍보할 경우, 고객에게 전화 시작 시점에 수신 거부 선택지를 의무적으로 제공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원하지 않는 광고 전화를 단속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S.8450-B/A.8319-C)에 따라 전화로 홍보할 경우, 고객에게 수신 거부 선택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안은 지속적으로 걸려오는 광고 전화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광고 전화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뉴욕 주민들은 귀찮은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신 거부를 해서 이러한 방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뉴욕 주민들이 수신을 거부하여 귀찮은 전화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법안(S.8450-B/A.8319-C)에 따라 전화로 홍보할 경우, 홍보사의 이름과 담당자 이름을 밝힌 직후 고객에게 수신 거부 선택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전화 홍보사들은 고객들이 수신 거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대부분 광고 전화를 받기 전에 끊거나 수신 거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끊기 때문에 광고 전화가 계속 걸려올 수 있습니다. 광고 전화 시작 시점에 고객에게 수신 거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번 법안은 뉴욕 주민이 원하지 않는 전화를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Jeremy Coone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가 계속 걸려오게 되기 때문에, 뉴욕 주민을 지속적인 광고 전화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전화 홍보사들은 수신 거부 관련 내용을 홍보 후반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이제 그만되어야 합니다. Paulin 하원의원의 협력과 Hochul 주지사의 지원으로 우리는 뉴욕 주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Amy Paul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동 광고 전화는 일상을 방해하며 어떤 사람이나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 홍보사는 홍보를 시작하기 전 수신 거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우리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전화를 끊게 될 것입니다. 저는 **Jeremy Cooney** 뉴욕주 상원의원과 함께 이번
법안을 지원할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주민을 괴롭히는 자동 광고 전화를 멈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